

광주 중소 제조업체 66% “올해 영업 실적 악화”

광주상의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고물가·경기침체 여파 2분기 연속 ↓
내수소비 위축·원자재 상승 등 우려
“경기부양책 등 정부 대응체계 필요”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동 분쟁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광주지역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분기(97)보다 3p 하락한 ‘94’로 집계되는 등 2분기 연속 하락했다.

BSI는 수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

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4분기에 특히 우려되는 대내외리스크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내수소비 위축(69.2%)’을 꼽았다. 이어 ‘유가·원자재가 상승(37.7%)’, ‘고금리 등 재정부담(29.2%)’, ‘수출국 경기침체(25.4%)’, ‘환율 변동성 확대(23.1%)’, ‘(기업부담반등 등) 국내 정책 이슈(11.5%)’ 등의 순이었다.

3분기 실적(71)도 지난 분기보다 29p 하락하면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는데, 이 역시 대내외 경기 부진 및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생산·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영향목별로는 4분기 매출액(96→101)은 국내외 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미약한 경기 회복세 가운데 원자재가격 및 에너지

지비용 상승, 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88→90), 설비투자(101→95), 자금사정(83→75)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지 못했다.

3분기 실적 또한 매출액(103→75), 영업이익(94→63), 자금사정(82→61) 모두 전분기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실제로 응답 업체들의 63.8%는 올해 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 대비 미달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24.6%,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1.6%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통신, 식음료는 전분기보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철강·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은 전분기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유라·시멘트는 이전 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은 대내외 수요 부진 및 제조경기 위축 등으로 3분기 실적(124→62)은 지난 분기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4분기 전망(88→77)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역시 전방산업 협황 부진 및 생산·투자 둔화 등으로 3분기 실적(97→72)은 전분기보다 25p 감소했으며, 4분기 전망(99→96) 또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65.8%가 영업이익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 대비 미달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대·중견기업 역시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수출규모별로는 수출기업은 국제정세 불안 및 수출 경쟁 심화 등으로 3분기 실적(88→59)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4분기(112→112)에는 자동차, 식음료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 호조 기대감 등으로 경기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의 64.7%가 영업이익이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내수기업 역시 실적이 ‘목표 대비 미달될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국내외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는데다 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경영리스크 또한 증가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좀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수 및 투자수요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마련과 더불어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 ‘코튼클럽 할인전’

광주신세계는 30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이너웨어 및 의류 생산·유통 전문기업 ‘코튼클럽’과 손잡고 가을 신상품 할인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트라이엄프’, ‘엘르’, ‘게스’ 등 이너웨어 인기 브랜드와 ‘코데즈컴바인’ 의류 등 다채로운 할인을 제공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광양마동중과 MOU 체결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최근 광양마동중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작동원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개인의 현명한 소비활동 등 금융전반에 대한 기초지식, 기본소양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별 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해 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 등 다양한 금융교육 시간을 배정해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는 그동안 축적된 금융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학교 수준에 맞는 교재와 교육 방법 등을 개발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광주경총 “지역균형발전 위해 재생에너지 육성해야”

“기업 RE100 참여 대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9일 인허가가 중단된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지난 5년 사이 광주·전남 인구는 10만명 줄었고 매년 1만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호남 재생에너지 사업은 인허가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

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경총은 “호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평야, 긴 해안선을 가진 재생에너지 보고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허가 중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멈춰 있다”면서 “향후 기업의 RE100 참여를 대비하고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서라도 지역 재생에너지의 집중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수급 예산 7조9000억원과 매년 전력소실액 1조7000억원을 우리 지역에 활용해 전기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에너지 연관산업을 육성하면 광주·전남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유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출산율 확대에 기여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올해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1위

승용차타이어 부문

금호타이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한 ‘2024년 제33차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올해 소비자·내구재 제조업, 일반·공공 서비스업 등 총 119개 산업군, 398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을 조사 진행했다.

금호타이어는 내구재 제조업 분야 승용

차 타이어 부문에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구입(이용) 의향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 종합 점수 88.0점(부문 평균 86.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고속주행 시 소음이 적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타이어의 디자인이 좋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적절하다’, ‘제조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타사 대비 높은 점수를 줬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액인 4조5600억원의 목표를 설정

하고 판매 증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제 1139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12	15	30	37	40	1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1억6749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261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4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노동 칼럼

A씨는 일주일 전부터 주6일제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320만원을 받으면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사업주가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 통보했다.

이렇게 갑자기 해고하면 어떻게 하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당장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냥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뿐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우리 센터에

상담 문의했다.

A씨가 일한 식당에서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상시근로자수)인지에 따라서 A씨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데, A씨가 일한 곳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식당이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하는 해고의 사유, 절차, 방법 등의 제한이 없다. 사실상 사업주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 예고 제도를 지켜주면 된다. 사업주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해주거

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A씨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것은 이러한 해고 예고였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토대로 이를 거부한 것인데, 사업주의 이런 주장은 그 근거가 틀렸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30일 이전에 말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결국 A씨는 사업장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해고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해고예고 제도는 계속 근로기

해고



이연주
공인노무사

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지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를 거쳐야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해고예고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하지도 못한다.

해고는 노동자에게 살인과 다름없다. 당장 생계의 위협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수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보호하는 수준을 나누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상시근로자수, 재직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나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고에 대한 것이 있다.

적어도 해고에 대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길 바란다. 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라.

1588-6546